

#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및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박 찬 일\*\*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및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비교·분석한다. 1985~1998년 기간에 중국의 주력수출품목이 비제조업상품군에서 제조업상품군으로 변화한 반면에, 한국의 수출구조변화는 주로 제조업상품군 내에서 품목별 비중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SITC 2단위 기준에 의거한 산업내무역 지수의 산출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SITC 8품목 내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들이고, 주요 수입특화품목은 자본집약적인 생산재 위주의 중화학공업제품들이다.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전기기계 및 장비, 사무용 기계 및 컴퓨터, 기타 산업기계, 철강제품 등의 품목에서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1~1998년 기간에 미국 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비교하면 중국의 비교우위는 대부분 경공업제품군에서 나타나고, 한국의 비교우위는 상당 부분 중화학제품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WTO가입으로 의복 및 직물품목 등의 경공업제품군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금속제품, 전기기계, 컴퓨터 등의 산업에서도 앞으로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약화가 예상된다.

핵심주제어: 무역구조, 산업내무역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1

## I. 서 론

중국은 1996년 이래 미국, 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양면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나는 중국이란 거대시장에서 초래되는 잠재적 이득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직면하게 될 경쟁의 심화이다. 우선 중국이 한국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의 높은 공유도는 두 나라 간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둘째, 전통적으

\*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전화: (041) 850-8441, E-mail: cipark@kongju.ac.kr

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시장의 다양성(diversification) 제고를 통하여 해외경기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다.<sup>1)</sup> 셋째, 한국과 중국은 경제발전단계 및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경제협력의 여지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약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한국에게 엄청난 시장확대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긍정적인 이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에게 가장 두려운 경쟁상대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1년 11월 중국의 WTO가입결정은 이러한 경쟁심화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관세인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온다.<sup>2)</sup>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간의 경쟁심화는 WTO가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의 시장경제화를 확산시키고, 기존의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각종 정책과 상거래 관습 및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됨으로써 국유기업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노출되고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보조의 감소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타율적이지만 국유기업의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해외자본의 유입 및 선진기술의 이전이 촉진된다. WTO규범의 준수를 통해 기대되는 중국의 대외신뢰도 향상과 함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완화는 외국인투자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중국 경제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해외자본의 유입은 금융기관 부실채권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3)</sup> 해외직접투자에 체화된 선진기술의 축적과 경영노하우에 대한 학습효과를 국유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자본의 유입은 연해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진 중국 내륙지역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여 빈부격차로 인한 내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sup>4)</sup>

1) 최근에 한국의 미국 시장 의존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이다. 1999년 말 현재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은 약 3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상회한다.

2) 정인교(2001, 4).

3) 1999년 말 현재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3조 위안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기술격차의 해소 및 중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이 연구는 부차적으로 우리 나라가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거시적 안목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구축에 필수적인 산업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산업내무역지수(intra-industrial trade index)의 산출을 통하여 양국의 품목별 무역특화도를 비교한다. 비교대상품목은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되고 있다. 제Ⅲ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출경쟁력이 비교된다. 시장점유율 및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가 수출경쟁력의 지표로써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절은 본 논문을 요약하고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비교분석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해외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시켜 1980~1999년 기간에 연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일본, 한국 및 대만 등 주변국가들의 기적적인 경제성장과정은 중국에게 개혁·개방정책만이 현대화의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게 하였으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일종의 교훈으로 작용하였다.<sup>5)</sup>

4)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2001~2005)에 중국의 3대 개혁은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및 서부지역개발이다. 내륙서부지역은 중국 전국토의 56%, 총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액의 14.5%, 총무역액의 3.3%를 점유하여 경제적으로 상대적 낙후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00년 6월 중국 정책당국은 서부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요건완화 및 세금우대조치 등 외자도입촉진책을 발표한 바 있다(양평섭(2000)).

1992년 등소평의 제2차 개혁·개방선언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국의 수출은 연평균 14.6%로 늘어나면서 한국의 증가세인 9.0%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수출액은 1990~1999년 기간에 650억 달러에서 1,437억 달러로 2.2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중국의 수출은 같은 기간에 621억 달러에서 1,952억 달러로 3.1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효과가 단순히 무역의 외형적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역의 구조적 변화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은 SITC 1단위 품목별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 변화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중국의 주력수출품목이 비제조업상품군에서 제조업상품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5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최대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성 연료(SITC 3)이다. 또한 당시 비제조업상품군(SITC 0~SITC 4, SITC 9)의 수출비중은 약 5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에는 비제조업분야의 수출비중이 28%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제조업분야(SITC 5~SITC 8)의 수출비중이 72%로 급등하였다. 제조업분야의 상품군 중에서도 특히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와 잡제품

〈표 1〉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

(단위: %)

품 목	한 국			중 국			구성비 차이		
	1985(A)	1992(B)	1998(C)	1985(D)	1992(E)	1998(F)	A-D	B-E	C-F
SITC 0	3.78	2.38	1.83	12.53	9.78	5.77	-8.75	-7.40	-3.94
SITC 1	0.45	0.11	0.12	0.43	0.85	0.53	0.02	-0.74	-0.41
SITC 2	0.98	1.48	1.17	9.35	3.69	1.91	-8.73	-2.21	-0.74
SITC 3	3.14	1.81	3.47	23.03	5.52	2.82	-19.89	-3.71	0.65
SITC 4	0.01	0.01	0.01	0.41	0.16	0.17	-0.40	-0.15	-0.16
SITC 5	3.09	6.56	7.74	5.11	5.12	5.61	-2.02	1.44	2.13
SITC 6	23.33	23.76	21.61	19.81	19.00	17.67	3.52	4.76	3.94
SITC 7	37.59	48.73	49.20	3.79	15.54	27.32	33.80	33.19	21.88
SITC 8	27.65	13.98	9.39	21.31	39.98	38.19	6.34	-26.00	-28.80
SITC 9	0.10	1.18	5.46	4.23	0.35	0.01	-4.13	0.83	5.45

자료: OECD(2001).

5) Jene K. Kwon(1988).

(SITC 8)의 수출비중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다.

반면에 한국 수출구조의 경우 같은 기간에 제조업분야와 비제조업분야의 기여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상품군의 비중이 1985년 92%, 1998년 88%로 한국의 수출구조는 여전히 제조업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제조업상품군 내에서의 구조변화가 특기할 만하다. 공산품(SITC 6)의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화학관련제품(SITC 5)과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의 비중은 상승추세에 있는 반면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군에 속하는 잡제품(SITC 8)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과 중국의 종합적 수출구조 변화추이는 <표 1>의 구성비 차이의 추이에 의하여 쉽게 밝혀질 수 있다. 우선 SITC 3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 품목에 대한 양국의 구성비 차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다. 제조업분야에서 보면 SITC 5 품목과 SITC 6 품목의 수출비중 차이는 커다란 변화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양국의 수출비중이 모두 상승한 SITC 7 품목의 경우 구성비의 차이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SITC 7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이 수출우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SITC 8 품목의 경우 1985년 6.34%의 격차가 1998년에 -28.80%로 낮아져 구성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비록 중국의 주력수출품목이 비제조업분야에서 제조업분야로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주로 SITC 8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급성장한 데서 기인하고, 부분적으로 SITC 7 품목에 대한 수출비중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상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제조업상품의 무역은 원자재무역에 비하여 신기술개발, 효율성 증대 및 생산의 다양화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998년도 제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은 72%로 아직 한국, 일본 및 대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산업화의 지표로 종종 사용되는 SITC 7 품목의 수출비중 역시 한국에 비해 약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85년도 한국의 수출구조와 1998년도 중국의 수출구조를 비교하면 중국은 아직도 1985년도 한국의 수출구조를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1998년도 제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1985년도 한국의 경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998년도 SITC 7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1985년도 한국의 수출비중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 <표 2>는 앞에서 언급한

〈표 2〉 한국과 중국의 수입구조

(단위: %)

품 목	한 국			중 국			구성비 차이		
	1985(A)	1992(B)	1998(C)	1985(D)	1992(E)	1998(F)	A-D	B-E	C-F
SITC 0	4.49	4.62	4.94	4.15	3.90	2.70	0.34	0.72	2.24
SITC 1	0.16	0.34	0.32	0.63	0.30	0.13	-0.47	0.04	0.19
SITC 2	12.39	9.13	7.80	8.43	7.16	7.64	3.96	1.97	0.16
SITC 3	23.65	14.96	19.51	1.26	4.43	4.83	22.39	10.53	14.68
SITC 4	0.47	0.30	0.33	0.25	0.65	1.06	0.22	-0.35	-0.73
SITC 5	8.96	9.49	9.92	9.26	13.88	14.37	-0.30	-4.39	-4.45
SITC 6	11.42	15.46	11.91	27.47	23.92	22.16	-16.05	-8.46	-10.25
SITC 7	34.20	36.31	33.46	41.48	38.17	40.53	-7.28	-1.76	-7.07
SITC 8	3.96	7.93	6.95	6.19	6.86	6.03	-2.23	1.07	0.92
SITC 9	0.31	1.47	4.87	0.88	0.73	0.54	-0.57	0.74	4.33

자료: OECD(2001).

양국 수출구조의 차이를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1985~1998년 기간에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중의 하나는 SITC 3 품목이다. 그러나 이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비중은 5%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학관련제품(SITC 5), 공산품(SITC 6),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비중은 약 75%에 이르지만 한국의 수입비중은 평균적으로 60%에 미치지 못한다. 〈표 1〉과 〈표 2〉를 종합하면 우리는 시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비록 제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SITC 8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군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을 다른 각도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산업내무역지수의 산출을 통하여 가능하다.<sup>6)</sup> 지수의 정의에 따라 산업내무역지수(IIT)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약 특정 산업내부 또는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같다면 IIT지수는 0이 되는데, 이는 특정 산업 또는 해당 품목이 수

6) 산업내무역지수는 무역특화도지수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산업내무역지수} = \frac{(E_i - M_i)}{(E_i + M_i)}$$

여기서,  $E_i$ : 품목별 수출 $M_i$ : 품목별 수입

〈표 3〉 중국의 주요 품목별 IIT지수(1998)

수출품목( $0.5 < IIT < 1$ )			수입품목( $-1 < IIT < -0.5$ )			수출수입대등품목( $IIT = 0$ )		
품 목	IIT지수	수출비중	품 목	IIT지수	수입비중	품 목	IIT지수	수출·입비중
SITC 84	0.931	16.3	SITC 72	-0.740	5.9	SITC 77	-0.091	11.9
SITC 89	0.767	10.3	SITC 57	-0.880	5.8	SITC 65	0.072	7.0
SITC 85	0.933	4.6	SITC 64	-0.562	2.4	SITC 75	0.335	6.4
SITC 69	0.548	3.6	SITC 73	-0.708	1.9	SITC 76	0.174	6.0
SITC 83	0.988	1.8	SITC 56	-0.886	1.8	SITC 67	-0.327	4.6
SITC 05	0.794	1.6	SITC 26	-0.596	1.7	SITC 74	-0.241	4.2
SITC 82	0.934	1.5	SITC 61	-0.566	1.4	SITC 33	-0.378	4.2
SITC 03	0.597	1.4	SITC 58	-0.553	1.1	SITC 71	-0.351	2.9
SITC 52	0.597	1.3	SITC 42	-0.668	1.0	SITC 51	-0.148	2.5
SITC 32	0.929	1.0	SITC 08	-0.731	1.0	SITC 88	0.334	2.1

출이나 수입에 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IT지수가 시사하는 것은 산업내부의 무역이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제품차별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점이다. 만약 어느 한 국가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출이나 수입에 전적으로 특화시켰다면 IIT지수는 각각 +1 또는 -1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 둘 간의 무역은 산업내무역이 아니라 산업간(inter-industrial)무역이 된다. 특정 품목의 IIT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된 품목이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된 품목이다.

〈표 3〉은 SITC 2단위 품목별로 1998년도 중국 무역의 IIT지수를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IIT지수의 크기에 따라 수출특화품목, 수입특화품목 및 수출입대등품목 등을 구분하고 있고, 수출입비중이 큰 순서대로 해당 품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표 3〉을 통해 우리는 IIT지수가 1에 가까운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SITC 8 그룹 내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SITC 84), 문구와 완구가 포함된 기타 잡제품(SITC 89), 신발(SITC 85), 여행관련제품(SITC 83), 가구(SITC 82) 등 소비재성향의 경공업제품들이 중국의 수출특화품목이다.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약 35%를 점유하고 있다.

IIT지수가 -1에 가까운 중국의 주요 수입특화품목은 특수기계(SITC 72), 플라스틱(SITC 57), 금속가공기계(SITC 73), 비료(SITC 56) 등의 중화학제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특화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 밖에도 중국의 주요

〈표 4〉 한국의 주요 품목별 IIT지수(1998)

수출품목( $0.5 < IIT < 1$ )			수입품목( $-1 < IIT < -0.5$ )			수출수입대등품목( $IIT = 0$ )		
품 목	IIT지수	수출비중	품 목	IIT지수	수입비중	품 목	IIT지수	수출·입비중
SITC 78	0.880	8.9	SITC 33	-0.511	14.7	SITC 77	0.198	17.6
SITC 65	0.671	8.5	SITC 28	-0.956	3.0	SITC 74	-0.054	3.8
SITC 79	0.728	6.9	SITC 32	-0.999	2.4	SITC 51	-0.018	3.5
SITC 76	0.556	5.3	SITC 34	-0.873	2.4	SITC 67	0.437	3.0
SITC 84	0.804	3.5	SITC 04	-0.875	1.8	SITC 87	-0.151	2.6
SITC 57	0.597	3.1	SITC 59	-0.507	1.8	SITC 72	0.059	2.3
SITC 62	0.823	1.3	SITC 52	-0.522	1.2	SITC 75	0.466	2.1
SITC 64	0.641	1.3	SITC 25	-0.999	1.0	SITC 89	0.330	2.0
SITC 61	0.548	0.9	SITC 24	-0.983	0.7	SITC 88	-0.191	1.5
SITC 85	0.670	0.6	SITC 21	-0.968	0.6	SITC 73	-0.082	0.9

수입품목은 종이제품(SITC 64)과 가죽제품(SITC 61)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1998년도에 이르러 주목할 만한 사실은 IIT지수가 0에 가까운 수출입대등품목에 중공업 및 정보기술관련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기기계 및 장비(SITC 77), 사무기계 및 컴퓨터(SITC 75), 통신장비 및 녹음기구(SITC 76) 등의 정보기술관련품목들을 비롯하여 기타 산업기계(SITC 74), 동력기계 및 장비(SITC 71), 철강제품(SITC 67) 등의 중공업제품들에 대한 중국의 무역은 세계시장에서 수출특화나 수입특화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4〉는 SITC 2단위 품목에 대한 한국 무역의 IIT지수를 산출하여 무역특화도 및 수출입비중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도로차량(SITC 78), 기타 운송장비(SITC 79), 통신장비 및 녹음기구(SITC 76), 직물(SITC 65), 의복(SITC 84), 플라스틱(SITC 57) 등을 포함한다. 이 품목들의 수출비중은 33%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수입특화품목은 석유 및 석유관련제품(SITC 33), 금속합유광석(SITC 28), 석탄(SITC 32), 천연가스(SITC 34) 같은 원자재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품목들에 대한 수입은 전체 수입에서 약 23%를 차지한다. 한국의 수출입대등품목으로는 전기기계(SITC 77), 기타 산업기계(SITC 74), 유기화학물(SITC 51), 철강제품(SITC 67), 특수기계(SITC 72) 등이 꼽힌다.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IIT지수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



된다. 첫째, 플라스틱(SITC 57), 가죽제품(SITC 61) 및 종이제품(SITC 64) 등의 세 품목에서 한국의 수출특화품목과 중국의 수입특화품목이 일치하고, 석탄(SITC 32) 및 무기화학물(SITC 52) 등의 품목에서 한국의 수입특화품목과 중국의 수출특화품목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품목들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깨끗한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복(SITC 84) 및 신발(SITC 85)품목은 양국의 공통적인 수출특화품목이다. 이에 따라 이 품목들에 대한 무역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품목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경우 약 21%, 한국의 경우 약 4%로 이 품목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중공업제품이지만, 중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여전히 경공업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의 주요 수입특화품목은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의 주요 수입특화품목에는 생산재가 많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전기기계 및 장비(SITC 77), 사무용기계 및 컴퓨터(SITC 75), 기타 산업기계(SITC 74), 철강제품(SITC 67) 등의 품목에서 양국 모두 수출입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관찰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비교·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부분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 경쟁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7)</sup>

### III.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비교우위의 존재 여부는 무역특화도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한 나라의 어떤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는 환율, 임금, 가격 및 요소투입비율 등 거시주요변수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동태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경쟁력의 지표로써 세계 주요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사용한다.

7) 1998년도 중국 수출입대등품목의 1992년도 IIT지수값을 살펴보면, 1992년만 하더라도 SITC 67품목과 SITC 71(동력기계)의 IIT지수는 각각 -0.541, -0.507로 수입특화품목에 가까웠지만 1998년도에는 수출입대등품목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SITC 77, SITC 75, SITC 76 및 SITC 74 등의 품목에서도 IIT지수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표 5〉 SITC 1단위 품목별 시장점유율 추이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한국	SITC 5	1.03	0.97	1.07	1.12	1.12	1.14	1.15	1.36
	SITC 6	3.66	3.42	2.90	2.76	2.55	2.47	2.49	3.17
	SITC 7	3.47	3.29	3.44	3.84	4.71	4.28	3.96	3.53
	SITC 8	8.37	6.58	5.19	4.13	3.39	2.71	2.35	2.37
중국	SITC 5	1.66	1.89	2.07	2.20	2.23	2.35	2.51	2.71
	SITC 6	3.11	3.91	4.27	4.38	4.92	5.13	5.73	6.41
	SITC 7	1.58	1.97	2.39	3.00	3.50	3.93	4.43	5.20
	SITC 8	14.88	17.94	20.40	21.69	22.00	23.16	23.88	24.23

〈표 5〉는 1991~1998년 기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시장이 선택된 이유는 이 시장이 양국의 최대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제품경쟁에서 비교적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대상품목을 제조업상품에 국한시킨 것은 1998년 당시 한국 제조업상품 대미수출이 전체 대미수출에서 95%를 상회하는 데서 기인한다.

SITC 1단위 대분류 수준에서 품목별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양국의 주력제품 중의 하나인 SITC 7 품목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살펴보자. 이 품목에 대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991년 3.5%에서 1994~1997년 기간에 평균 4.2%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1998년에 다시 3.5%대로 추락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른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1991년 1.6%에 머무르던 점유율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여 1998년에는 한국의 점유율보다도 높은 5.2%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시장점유율의 변화에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SITC 8 품목의 시장점유율 추이이다. 한국의 경우 1991년만 하더라도 이 품목에 대한 미국 시장 점유율이 8.4%에 이르렀지만 급속한 하락추세와 함께 1998년에는 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1991년의 14.9%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24.2%에 달하고 있다. 즉,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경쟁

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앞에서 지적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추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비중에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ITC 6 품목의 경우에서도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저하가 관찰된다.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991년의 약 3.7%에서 1993~1997년 기간에 평균 2.6%대로 낮아져다가 1998년 3.2%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제품은 1991년 3.1%에서 1998년 6.4%로 꾸준한 시장점유율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비중이 가장 낮은 SITC 5 품목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승속도를 보면 중국이 약간 앞서고 있다.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는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한다. 첫째, 1990년대에 SITC 1단위 기준으로 제조업분야의 모든 품목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어 이제는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sup>8)</sup> 둘째, 한국의 경공업제품(SITC 8)에 대한 비교우위는 중국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대수출품목인 SITC 7 품목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경쟁력의 두 번째 지표로써 본 연구는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사용한다.<sup>9)</sup> 이 지수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총수출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이다. 특정 수출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은 1991년도 및 1998년도 한국과 중국의 미국 시장 RCA를 산출한 결과이다. 비교대상품목은 제조업상품이며, RCA의 크기 순서대로 SITC 2단위 기준 10개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1991년도 한국의 품목별 RCA를 살펴보면 경

8) 비제조업분야까지 포함하여 전체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1991년 3.5%에서 1998년 2.6%로 하락한 반면에,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4.0%에서 8.0%로 상승하였다.  
9)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CA = \frac{X_{ijk} / X_{ik}}{X_{jk} / X_k}$$

여기서,  $X_{ijk}$ :  $k$ 시장에 대한  $i$ 국의  $j$ 품목 수출액  
 $X_{jk}$ :  $k$ 시장의  $j$ 품목 총수입액  
 $X_{ik}$ :  $k$ 시장에 대한  $i$ 국 총수 출액  
 $X_k$ :  $k$ 시장의 총수입액

〈표 6〉 한국과 중국의 주요 품목별 RCA

한 국				중 국			
1991		1998		1991		1998	
품 목	RCA	품 목	RCA	품 목	RCA	품 목	RCA
SITC 85	5.88	SITC 77	3.08	SITC 83	9.70	SITC 85	7.27
SITC 83	4.61	SITC 67	2.48	SITC 85	6.72	SITC 83	6.19
SITC 84	3.00	SITC 65	2.47	SITC 89	4.28	SITC 81	5.50
SITC 65	2.27	SITC 62	2.02	SITC 84	3.70	SITC 89	4.30
SITC 76	2.14	SITC 58	2.01	SITC 81	3.34	SITC 82	2.17
SITC 77	1.98	SITC 75	1.71	SITC 65	2.68	SITC 76	1.97
SITC 62	1.91	SITC 83	1.55	SITC 76	1.63	SITC 84	1.68
SITC 67	1.84	SITC 76	1.47	SITC 69	1.37	SITC 69	1.61
SITC 89	1.78	SITC 84	1.46	SITC 82	1.19	SITC 88	1.58
SITC 69	1.65	SITC 69	1.37	SITC 88	0.94	SITC 65	1.41

공업제품들(신발: SITC 85, 여행관련제품: SITC 83, 의복: SITC 84, 직물: SITC 65)과 중화학제품들(통신 및 녹음장비: SITC 76, 전기기계: SITC 77, 고무제품: SITC 62, 철강제품: SITC 67)들이 골고루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1991년도 상위 RCA 품목들은 대부분 경공업제품들(SITC 8 내의 7개 품목, 직물: SITC 65)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도 상위 RCA 품목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 차례바뀔과 구조변화가 더욱 현저하게 관찰된다. 1991년에는 RCA 상위 5개 품목이 SITC 76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경공업제품이었지만, 1998년에는 SITC 65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중화학제품들로 전환되었다. 특히 SITC 85 품목과 SITC 89 품목은 상위 10개 품목에서 완전히 빠져 버렸다. 대신에 플라스틱가공제품(SITC 58)과 사무용 기계 및 컴퓨터(SITC 75)가 10대 품목에 새로이 진입하였다. 중국의 1998년도 상위 RCA 품목들의 구성은 1991년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상위 5대 품목들은 약간의 순위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SITC 8 내의 5개 품목들이다. 또한 상위 10개 품목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이 진입하거나 빠져나간 품목들이 전혀 없다.

1991~1998년 기간에 RCA의 변화추이는 비교우위 변동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한국의 경우 이 기간에 RCA가 증가한 품목은 SITC 65, SITC 77,

SITC 62, SITC 67 등으로 SITC 65를 제외하고 모두 중화학제품들이다. 반면에 RCA가 감소한 7개 품목들은 대개 SITC 8에 속하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들이다. 중국은 이 기간에 7개 품목에서 RCA의 상승을 나타냈다. RCA가 감소한 품목들은 SITC 83, SITC 65 및 SITC 84 품목들이다. 즉, 경공업제품군 내에서 비교우위의 구조변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표 6>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8년도 중국의 RCA 상위 10개 품목과 1991년도 한국의 상위 10개 품목에 유사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우선 10개 품목 중에서 SITC 77, SITC 62 및 SITC 67 등의 세 품목을 제외하고 7개 품목이 동일하다. 또한 RCA 최상위 2개 품목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듯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이 대략 일치한다는 점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국 경제발전단계의 시차라고 해석될 수 있다.

####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에 즈음하여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추이 및 수출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SITC방식에 의거하여 산업별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관계 및 상호보완적 관계가 산업내무역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산출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수출경쟁력의 비교를 위한 대상지역으로는 양국의 최대수출시장이면서 제품경쟁에서 비교적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미국 시장이 선택되었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85~1998년 기간에 중국은 세계시장과의 무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나타냈다. 우선 중국의 주력수출품목이 비제조업상품군에서 제조업상품군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군인 SITC 8 품목의 수출비중이 급성장한 데서 기인하고, 부분적으로 SITC 7 품목에 대한 수출비중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제조업상품군의 수출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제조업상품군 내에서는 주목할 만한 구조변화가 존재하였다. SITC 5 품목과 SITC 7 품목의 비중은 상승추세에 있는 반면에 SITC 8 품목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비록 제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SITC 8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상품군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수출우위

에 있다. 또한 1998년 현재, 중국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수출비중이 72%로 한국, 일본 및 대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산업화지표로 사용되는 SITC 7 품목의 수출비중 역시 중국은 한국의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1998년도 중국의 수출구조는 1985년도 한국의 수출구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1998년도 제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1985년도 한국의 경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998년도 SITC 7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1985년도 한국의 수출비중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1985~1998년 기간에 SITC 8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상품(SITC 5, SITC 6, SITC 7)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비중은 약 75%에 이르지만 한국의 수입비중은 평균적으로 60%에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SITC 2단위 기준에 의거한 산업내무역지수의 산출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SITC 8 품목 내의 경공업제품들이고, 주요 수입특화품목은 자본집약적인 생산재 위주의 중화학공업제품들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제품들과 약간의 경공업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수입특화품목은 원자재이다. 특히 플라스틱, 가죽제품, 종이제품, 석탄 및 무기화학물 등의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복 및 신발품목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전기기계 및 장비, 사무용 기계 및 컴퓨터, 기타 산업기계, 철강제품 등의 품목에서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수출특화나 수입특화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85~1998년 기간의 양국 무역구조 변화추이와 1998년도 양국 무역의 IIT지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한다. 즉, 부분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 경쟁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여섯째, 1991~1998년 기간에 미국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제조업분야의 모든 품목들(SITC 1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어 이제는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공업제품군(SITC 8)에 대한 비교우위는 중국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대수출품목인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현저하게 관찰된다.

일곱째, 미국 시장에 대한 양국 무역의 RCA를 산출한 결과, 1991~1998년 기간에 중국의 상위 RCA 10개 품목들은 대부분 경공업제품들(SITC 8 내의 7

개 품목, 직물: SITC 65)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순위변동 속에 동일한 품목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1년에는 경공업제품들과 중화학제품들이 상위 RCA 10개 품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1998년에 이르러 순위바뀜과 함께 경공업제품 2품목(SITC 85, SITC 89)이 탈락하고 플라스틱가공제품과 사무용기계 및 컴퓨터가 새롭게 진입하였다.

여덟째, 1998년도 중국의 RCA 상위 10개 품목과 1991년도 한국의 상위 10개 품목은 3개를 제외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또한 RCA 상위 2개 품목이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기간은 양국 경제발전단계의 시차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제까지 분석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살펴보자. WTO의 가입과 함께 중국은 1999년 11월의 미·중 합의안, 그리고 2000년 5월에 타결된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합의안에 따라 2001~2005년 기간에 경상거래에 대한 각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업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농산물 수입자유화, 중국산 방직제품(직물 및 의복)의 수입쿼터제 폐지 및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향후 우리 나라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은 제조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와 중국산 방직제품의 수입쿼터제 폐지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내무역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복(SITC 84)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앞으로 이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가 폐지되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물(SITC 65)품목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 비록 산업내무역지수에 의하면 중국은 이 품목에 대하여 수출특화나 수입특화가 아닌 수출입대등품목이지만 RCA에 의하면 상위 10개 비교우위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조업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인하는 한국에게 양면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첫째, 관세인하로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이면서 높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중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sup>10)</sup> 둘째,

10) 1999년 말 현재, 제조업상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은 약 17%에 달한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년까지 평균관세율을 9.4%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품목별 관세인하율을 살펴보면, 차량 및 부품산업 63.1%, 석유화학 31.6%, 플라스틱제품 39.4%, 철강제품 42.1%, 전기전자제품 50.2%, 기계장비 35.9%가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중국의 주요 수입특화품목인 자본재(예를 들어, SITC 72: 특수기계 SITC 73: 금속가공기계, 플라스틱: SITC 57)에 대한 관세인하는 최종재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중국의 중화학제품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이미 상당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통신·녹음장비(SITC 76) 및 금속제품(SITC 69)과 한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기기계 및 장비(SITC 77)와 사무용 기계 및 컴퓨터(SITC 75) 등의 품목에서 한국 수출경쟁력의 상대적 약화가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 박승록,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으로서는 한·중·일 안행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1999, 77~101.
- 양평섭, 『중국의 WTO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계획과 그 영향』, 지역연구회시리즈 0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정인교,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가 한·중·일 3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미발표 내부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정종인·이한녕,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구조 비교분석과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한은조사연구』 2000-4, 한국은행, 2000.
- Balassa, B. A.,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Vol. 33, 1965.
- Cooper, Caroline, "China and the WTO: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nd Japan," A Paper Presented at Annual Symposium of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n *Asian Perspectives on the Challenges of China*, Washington DC, 2000.
- EU, "The Sino-EU Agreement o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Results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http://europa.eu.int/comm/trade/bilateral/china/wto.htm>, 2000.
- Ianchovichina, Elena and Will Martin,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Bank, 2001.
- \_\_\_\_\_, and Emiko Fukase,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Merchandise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s Accession to WTO, World Bank, 2000.

Kim, Sijoong, "Implicat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for Korean Economy," A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Beijing, China, 2001.

Kwon, Jene K., "Korea-China Trade: The Potentials and Prospects," Occasional Paper Series 88-09, Ilhae Institute, 1988.

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CD ROM, 2001.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n the United State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Publication 3229, 1999.

## 부록: SITC Code

### 1. 1 Digit

- 0 Food and Live animals
- 1 Beverages and tobacco
- 2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 3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 4 Animals and vegetables oils, fats and waxes
- 5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 6 Manufactured goods
- 7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s
- 8 Miscellaneous and transactions, n.e.s.
- 9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e.s.

### 2. 2 Digit

- 00 Live animals other than animals of division 03
- 01 Meat and meat preparations
- 02 Dairy products and birds' eggs
- 03 Fish, crustaceans, molluscs and preparations thereof
- 04 Cereals and cereal preparations
- 05 Vegetables and fruits
- 06 Sugar, sugar preparations and honey
- 07 Coffee, tee, cocoa, spices, and manufactures thereof
- 08 Feedstuff for animals(excluding unmilled cereals)
- 09 Miscellaneous edible products and preparations
- 11 Beverages
- 12 Tobacco and tobacco manufactures
- 20 Confidential trade of section 2
- 21 Hides, skins and fuskins, raw
- 2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 23 Crude rubber(including synthetic and reclaimed)

- 24 Cork and wood
- 25 Pulp and waste paper
- 26 Textiles fibres and their waste
- 27 Crude fertilizers other than division 56, and crude minerals
- 28 Metalliferous ores and metal scrap
- 29 Crude animals and vegetable materials, n.e.s.
- 32 Coal, coke and briquettes
- 33 Petroleum, petroleum products and related materials
- 34 Gas, natural and manufactured
- 35 Electric current
- 40 Intrastat: estimation of missing declarations of section 4
- 41 Animals oils and fats
- 42 Fixed vegetable oils and fats, crude, refined or fractionated
- 43 Processed animal and vegetable oils and fats
- 50 Intrastat: estimation of missing declarations of section 5
- 51 Organic chemicals
- 52 Inorganic chemicals
- 53 Dyeing, tanning and colouring materials
- 54 Medicin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 55 Essential oils for perfume materials and cleaning preparations
- 56 Fertilizers other than group 272
- 57 Plastics in primary forms
- 58 Plastics in non-primary forms
- 59 Chemical materials and products, n.e.s.
- 61 Leather, leather manufactures and dressed fruskins
- 62 Rubber manufactures, n.e.s.
- 63 Cork and wood manufactures(excluding furniture)
- 64 Paper and paper manufactures
- 65 Textile yarn and related products
- 66 Non metallic mineral manufactures
- 67 Iron and Steel
- 68 Non-ferrous metals

- 69 Manufactures of metal, n.e.s.
- 71 Power generating machinery and equipment
- 72 Specialized machinery
- 73 Metal working machinery
- 74 Other industrial machinery and parts
- 75 Office machines and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 76 Telecommunication and sound recording apparatus
- 77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n.e.s.
- 78 Road vehicles
- 79 Other transport equipment
- 81 Prefabricated buildings, sanitary, heating and lighting fixtures, n.e.s.
- 82 Furniture and parts thereof
- 83 Travel goods, handbags, etc.
- 84 Articles of apparel & clothing accessories
- 85 Footwear
- 87 Professional and scientific instruments, n.e.s.
- 88 Photo apparatus, optical goods, watches and clocks
- 89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n.e.s.
- 91 Postal packages not classified according to kind
- 93 Special transactions & commodities not classified
- 96 Coin (other than gold coin), not being legal tender
- 97 Gold, non-monetary(excluding gold ores & concentrates)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rade Structures and Exports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Chan Il Park

This paper analyzes trade structures and exports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During the period of 1985~98, the composition of exports in China underwent a significant change. While China's major export items were non-manufactured goods in 1985, manufactured products occupied over 70 percent in total exports in 1998. Korea's structural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exports during the same period, however, can be explained mostly by the ratio changes within the category of manufactured products. According to the Intra-Industrial Trade index based on the SITC 2-digit classification, China's major export items consist almost entirely of labor-intensive goods in light industries and its major import items consist primarily of capital-intensive producer goods. The trades of both countries with the rest of the world tend to be horizontal with respect to items of SITC 77, SITC 75, SITC 74, and SITC 67. The indic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computed for the US market during the 1991~98 period show that the products appearing among the top 10 RCA for China represent, in general, labor-intensive products within the category of SITC 8. On the contrary, Korea's comparative advantages are shown in products belonging to heavy chemical industries.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s expected to deteriorate Korea's relativ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in such items as SITC 84, SITC 65, SITC 76, SITC 69, SITC 77, and SITC 75.

**Keywords:** trade structures, intra-industrial trade index,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JEL Classification:** F1